

# 大學博物館 活性化를 위한 學藝研究員의 專門職 役割\*

- 研究專任教授制의 確立과 役割評價 方案을 摸索하며-

吳 一 煥\*\*

## 목 차

- I. 대학박물관과 교육환경의 변화
- II. 활성화 논의와 학예연구원의 교육적 역할증대
  - 1.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 2.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기능과 역할의 증대
- III. 학예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업무분장과 역할평가 모색

## < 요약 >

1955년 8월부터 대학설치령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박물관은 2000년 12월 현재 88개에 이른다. 대학박물관은 지역문화의 연구센터로서 풍부한 연구교육자료의 보유와 우수한 문화교육인력을 배양하여 왔다.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함께 구제발굴의 참여와 연구인력 및 학술적 연구기능을 폭발적으로 제고시킴으로서 우리 나라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박물관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인력은 무엇보다도 정체성 확립과 함께 명확한 업무영역 및 역할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시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연구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지식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의 주요 구성원인 학예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인력의 업무분장과 전문직 역할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학예연구원은 자료, 시설과 함께 박물관 3대 요소의 주축이며 전문 연구능력을 보유한 교육자인 동시에 과학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은 지위와 대우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직은 교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임시 중간기착지로 인식되어왔고 실제로 대학박물관의 연구 및 교육적 활성화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되어 왔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연구, 교육, 전시, 조사, 유물관리, 행정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연구전임교수로 편입되어야 하며 적절한 업무분장과 엄정한 역할평가를 확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4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 논문(2001. 4. 20)

\*\* 경희대학교박물관 책임연구원

## I. 대학박물관과 교육환경의 변화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중요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되고 박물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교육,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는 운영규정이 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의 수집, 정리, 관리, 보존, 전시하며 박물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 연구,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지역문화활동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국공립박물관과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와 협조, 박물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있다.<sup>1)</sup> 이와 같이 대학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정규교육 최고과정인 대학에 설치하여 학술연구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교육기관이다.

세계 최초로 근대시설을 갖춘 초창기의 대학박물관은 개인의 수집자료를 대학에 기증함으로써 성립된 스위스의 바젤대학 박물관(1671년)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1683년)이다.<sup>2)</sup> 우리 나라에서 대학박물관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설립된 보성전문학교 박물관(1934년, 현 고려대학교)과 이화전문학교 박물관(1935년)을 비롯하여 경성제국대학(1941년) 박물관 등 1945년 해방 전까지 3개교가 있었다.<sup>3)</sup>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학박물관은 1955년 8월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9월부터는 종합대학교에 박물관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박물관비를 징수함으로써 양적 팽창의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자료와 연구인력을 제외한 시설면적만을 규정한 개정령으로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sup>4)</sup> 그러나 1982년 12월 법률적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5장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제14조(설립 및 운영), 제15조(업무).

2) <http://www.ashmol.ox.ac.uk> 참조

3) 우리 나라의 초창기 대학박물관은 일제 치하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민족문화재의 유실과 해외 유물을 막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민속자료 위주로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http://kuiib.korea.ac.kr:8088>)은 1934년 국내 최초로 대학박물관을 설립되었는데 1936년 안함평 여사의 회사금을 받아 민속품을 위주로 수집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http://museum.ewha.ac.kr>)은 1935년 민속품, 도자기 등을 진열하였다가 6. 25로 인해 모두 분실되었고 1952년 부산에 임시로 필승각(必勝閣)을 꾸미고 자료수집을 다시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http://www.snum.org>)은 경성제국대학 조선민속참고실(1929년) 소장 유물과 경성제국대학진열관(1941년) 박영철씨의 기증유물과 보존비를 기초로 건립)의 소장유물 및 건물을 인수하여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서울대학교부속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4) 대학설치기준령에 대학박물관은 1955년 8월 4일(대통령령 제1063호)제10조(시설기준), 1967년 6월 17일(문교부 교육기준령), 1967년 9월 27일(대통령령 제3226호)제11조 2항, 1970년 1월 27일(대통령령 제4543호, 대학설치 기준령)제12조 1항 참조. 당시 법령에서는 학생 2000인 미만까지는 450㎡ 이상, 2000인 이상일 때는 600㎡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였다.

설치근거가 삭제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박물관은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법적 지위의 확립과 대학박물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sup>5)</sup>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박물관이 비록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조사 그리고 교육적 학습자료의 연구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학박물관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유적조사와 구제발굴에 참여하면서 문화유산의 보호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인력과 학술적 연구기능을 폭발적으로 제고시킴으로서 우리 나라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은 교육적 기능보다는 조사기능에 적지 않게 편중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교육적 기능에 소홀하게 되자 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무관심을 초래하였고 보물창고로 각인되었다.

게다가 사회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초, 중등학교의 사회교과 교육과정까지 개편되고 있다. 사회교과 과정은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의 빠른 조류 속에서 지리, 역사, 사회과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탐구활동과 정보의 수집, 활용 등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지리, 실제 생활의 삶과 경험을 소재로 탐구하고 직접 조사하며 토론하도록 구성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과 사진, 지도, 주변정보 등을 문화와 연결하는 구성과 퍼즐, 마인드 맵, 신문기사 활용 등 기존의 교과과정과는 매우 다른 수업형태를 도입하고 있다.<sup>6)</sup>

2000년 12월 현재 88개에 이르는 대학박물관은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문

5) 1982년 12월 31일의 대통령령 제10983호(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에서는 박물관 설치조항이 누락되었지만 대통령령 제11018호(국립학교 설치령)에는 국립종합대학(단과대학 제외)에만 도서관과 박물관을 부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984년 12월 30일 박물관법의 제정에서도 대학박물관은 제외되었다. 이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대학박물관의 대학설치기준령상 부활 건의」를 1985년 10월 30일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출하였다. 대학박물관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1992년 6월 1일 『박물관법』을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다시 대학박물관이 누락되자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유원적(1992, 『고문화』 제40, 41합집: 1994, 『고문화』 제44집: 1996, 『고문화』 제48집: 1997, 『고문화』 제50집) 교수를 중심으로 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다. 허선도, 1986. (주10), 43~50: 장명수, 「대학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토론요지, 『박물관학보』(한국박물관학회)2, 150~153. 참조. 특히 장명수는 대학박물관의 법제 및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6)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개정중점, 성격, 목표 및 교수학습방법) 참조.

화의 연구센터로서 풍부한 연구교육자료의 보유와 우수한 문화교육인력을 배양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절대 다수의 대학박물관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시작함으로써 거대한 문화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하고 개편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비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박물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더욱 신선한 교육기능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박물관은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학술적 연구교육과 전시자료를 통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 II. 활성화 논의와 학예연구원의 교육적 역할증대

### 1. 대학박물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수많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간시설의 부족, 연구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은 대학박물관 뿐 아니라 일반 박물관의 커다란 두통거리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전문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연구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sup>8)</sup>

대학박물관은 '대학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학생, 그리고 조사, 연구자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적,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한 각종 자료와 특정 사실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능과 역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전문개정(1999. 2. 8 법률 제5928호)과 개정(2000. 1. 12 법률 제6130호)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학박물관들은 개별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책개발연구원, 「문화기반시설운영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1999)에 기초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의 박물관미술관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평가지표,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8) 한국박물관학회, 「아시아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제2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1999. 5. 17)에서는 呂濟民「중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森田恒之, 「일본의 박물관 현황과 과제」: 이윤조,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박물관학회,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제3회 박물관학 학술대회)에서는 이난영, 「국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쾌정, 「사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정징원,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8개의 대학박물관이 모여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창립하였다. 그 후 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학술지인 『고문화』의 창간과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대학박물관의 조사연구활동과 교육적 기능을 비롯한 특성, 활성화전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sup>9)</sup>

특히 대학박물관의 법률적 설치근거가 삭제, 누락되자 이를 계기로 기능적 측면 이외에 사명, 어제와 오늘, 회고와 전망, 기능과 역할,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더욱 활발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986년 대학박물관협회 창립 25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교육적 기능과 사명, 학술적 기능과 사명, 사회 문화적 기능과 사명 등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대학박물관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회고와 나아갈 새로운 지표의 모색은 물론 법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sup>10)</sup>

근래에는 대학박물관이 조사활동에 편중되어 소홀해 왔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현황 파악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현황과 전망, 활동현황과 방향, 역할과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운영과 과제 등 구체적인 역할 모색과 박물관 대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조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은 정규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의 비중을 점차 증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박물관이 증추적 역할을 해오던 발굴조사도 전문적인 발굴조사기관이나 재단의 설립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은 학술연구와 강의를 바탕으로 한 정규교육과 사회교육은 물론 전시를 통한 교육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강화시켜 가고 있다. 이처럼

- 
- 9)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창립 이후 학술지 56집에 이르는 『고문화』(1961. 5. 10 창간)발간, 현재 중단된 연합전시회(제1회 1963. 4. 20), 44회에 이르는 학술발표 및 강연회(제1회 1967. 6. 30), 7회에 걸친 학예연구원회 학술발표회(제1회 1995. 5. 2) 등의 행사를 주관해 왔다.
- 1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한국대학박물관 발전을 위한 협의회」특집 『고문화』21에는 진홍섭, 「한국대학박물관의 회고와 전망」: 안승주,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 윤세영,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등의 논문이 있다. 그리고 「창립25주년기념특집-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사명」 『고문화』 28, 29(1986)에는 안승주, 「대학박물관의 현황」: 허선도,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사명」: 이용조, 「대학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사명」: 정영화,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사명」 등에 대한 논문이 있다. 이외에 『고문화』 제54집(1999. 12)에는 제1집부터 발표된 글의 목적이 색인으로 정리되어 있다.
- 11) 정진봉, 1995.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46, 3~46; 정정원, 1995. 「대학박물관의 활동현황과 방향」 『고문화』 47, 99~112; 박친식, 1995. 「대학박물관과 지역사회」 『고문화』 47, 89~98; 최중호, 1997. 「대학박물관의 역할과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고문화』 50, 45~62; 조한희, 1998. 「한국대학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조, 1998. 「대학박물관의 운영과 과제-국립충북대학교의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52, 181~193; 이용조, 1999. (주8): 정정원, 1999(주8): 최중택, 2000. 「대학박물관과 교육」 『고문화』 55, 167~184 참조.

대학의 사회교육적기능이 점차 증시되고 강화되어감에 따라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위원회에서는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과 큐레이터의 역할, 운영철학과 활성화 전략, 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교육활동의 활성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 활동 방안과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2)</sup>

물론 학예연구원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교육적 기능이나 연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전시 혹은 발굴에 따르는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 일부 대학박물관에서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은 소홀히 하고 사회교육에만 치중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의 학예연구원들이 마치 사교클럽과 같은 무차별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무차별적 표절 등의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sup>13)</sup>

그러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대학박물관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학생과 일반인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반박물관의 기능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다.<sup>14)</sup>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자기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체성을 지닌 효과적인 교육과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최대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인력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명확한 업무영역 및 역할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 
- 1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학예연구위원회 제6회학술발표회 2000. 4. 21)에서는 김홍남,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사회교육기능과 큐레이터의 역할」; 김권구, 「박물관 운영철학과 활성화 전략」; 최종택, 「대학박물관과 교육-현황과 과제」; 홍경아, 「박물관과 청소년 교육」; 박성실, 「대학박물관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예」; 성태규, 「박물관 사회교육활동의 활성화」; 황호균,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안」 등의 글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발표문 일부가 『고문화』 제 55집(2000. 6)에 수정되어 실려 있다.
  - 13)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과 정보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들어 학예연구원들은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결과 뿐 아니라 심지어 전시기획에 이르기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연구와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피땀 어린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손쉽게 무차별 도용하거나 표절을 일삼고 있다. 이처럼 웹이나 출판물의 형태를 그대로 베껴다거나 몇 글자만 바꾸는 비연구자적 행동은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은 정보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 최소한 연구자간의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 한국박물관학회, 『전문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제5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2000. 11. 20)에서는 이난영, 「박물관의 전문화」; 이종선, 「고고역사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이종철, 「민속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이병훈, 「자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정동찬, 「과학산업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김홍남, 「미술사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오광수, 「근현대미술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의 글이 발표되었다.

## 2.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기능과 역할의 증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원(조사, 연구, 전시기획), 교육담당자(교육프로그램, 교육담당), 보존담당자(보존관리), 자료담당자(등록, 자료, 도서관리), 행정담당자(사무, 경영, 시설관리)등의 전문 연구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문적 기술직과 전시디자이너, 편집자, 사진기사, 시설관리자, 홍보담당자, 재정담당자, 동호회 담당자 등 역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다.<sup>15)</sup>

현재 우리의 대학박물관은 대체로 관장, 학예연구원, 관리인 이외에 대학원생인 조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관장은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원신분으로서 고도의 학술적 연구와 조사 및 강의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박물관 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관장은 절대 부족한 연구인력, 예산 및 시설의 부족, 운영조직 체계의 미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예연구원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보직과 박물관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박물관의 기능과 본연의 학술적 역할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6)</sup>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면 될수록 학예연구원의 교육적 역할은 더욱 커져 갈 것이고 대학의 정규강좌와 사회교육은 물론 학술의 체계화와 일반화를 위한 연구교육의 비중 역시 증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전문 학예인력으로는 연구자로서의 학예인력, 교육자로서의 학예인력, 과학기술자로서의 학예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학예연구원은 대학사회를 위해서 학교의 교육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술연구 이외에 사회교육의 교육담당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하고 전문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학예연구원은 전시와 박물관 관련의 유관학

15)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박물관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제3회 박물관학연구소 학술대회, 1999, 10. 15)에는 최중호, 「박물관 학예직 제도 운영을 위한 이상적 방안」: 이영두, 「박물관 전문직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기관과 자격제도에 관한 시행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요지가 있다. 그리고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박물관 전문직 제도에 대한 연구-박물관 전문직 제도와 박물관 전문직 양성교육방안을 중심으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물관 직업으로는 1973년 미국박물관협회 박물관연구 교과과정 위원회에서 제출한 「박물관 연구-대학과 박물관을 위한 교과과정 안내」에서 13가지의 전문직종이 제시되었다.(최중호, 1999, 「앞글」(주11) 7~11).

16) 정정원, 1999, (주8)136~147. 「대학박물관의 특징과 문제점」, 「대학박물관의 활동 방향」에서 대학박물관의 현실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을 교육하는 교육적 역할과 대학의 학술적 연구성과를 교육 자료화하고 사회교육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하여야 한다. 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능의 강화와 확대는 얼마나 수준 있고 다양하며 알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은 관장의 업무보조 뿐 아니라 연구담당, 행정담당, 교육담당 심지어 관리인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게다가 학술조사 이외에 정규교육, 박물관 강좌, 사회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아닌 행정직에 따르는 인사고과 평가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처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경영진을 비롯한 관장은 학예연구원이 연구와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뒷받침은 물론 대학박물관에 연구전임교수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시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연구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지식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능력과 실습기능을 보유한 대학박물관은 문화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기관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규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학박물관만큼 협조인력들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도 없다.

더 나아가 대학박물관은 발굴조사 기능보다는 학술연구와 교육자료를 통한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학술연구를 교육적 자료로 전환시켜주는 문화의 저장소, 문화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념성적 전시, 역사와 컴퓨터를 접목시키는 정보화전시, 남북간 문화공동체를 위한 통일교육전시, 발굴 이후 유적지 주변의 변화된 모습 등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박물관답게 시의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시자료를 찾아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사회단체들과 대중적 연대를 강화하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과감한 대외교류의 확대로 국내외의 문화적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환경

17) 엄소연, 1999, 「한국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2, 227~251에서는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역사(일제시대, 해방에서 1976년까지, 1976년 이후), 박물관교육 사례분석(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박물관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그 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며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 교육과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태규, 2000,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성문제」 『고문화』 55, 185~195에서는 문화적 폭력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박물관 사회교육의 정치적 속성과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강좌, 계층간의 상징폭력과 투쟁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큐레이터의 사명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박물관을 활용한 학교교육의 연구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종사자와 사회교과 담당교사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역사지리학이 통합된 문화강의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성과를 재정리하고 이를 사진, 도표,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각화 자료의 구축과 함께 사이버 문화의 중심체로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박물관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연구활동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박물관의 풍부한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구축과 멀티미디어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운용, 연구자료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확대, 사이버 전시와 정보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화사업,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시교육의 강화, 대학 강좌와 연계된 학습 및 교육 등은 대학박물관이 나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다.

21세기가 지식경영의 시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학예연구원이 학술자료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 Ⅲ. 학예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업무분장과 역할평가 모색

박물관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능력(64개 항목),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지식과 기술적 박물관학 능력(35항목), 운영에 대한 경영능력(100항목), 공개행사의 기획과 능력(35항목), 정보와 수장품 관리 및 보호능력(55항목) 등 289개의 전문적인 훈련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연구인력은 학예연구, 교육담당, 보존담당, 자료담당, 행정담당 등의 전문영역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18)</sup>

특히 학예연구원은 자료, 시설과 함께 박물관 3대 요소의 주축으로서 박물관 관련의 정규교육과정과 박물관학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을 마쳐야 하고 ICOM의 박물관 전문직업 윤리요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sup>19)</sup>

18) 국제박물관협회의 「전문적인 박물관 훈련을 위한 기본교과 과목」과 1999년 국제인력훈련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박물관의 전문적인 발달을 위한 국제박물관 협의회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의 항목이다.(최종호, 1999, 「앞 글」(주11)7~11과 <http://www.city.ac.uk/ictop/syllabus.html> 과 [curricula.html](http://www.city.ac.uk/ictop/curricula.html)참조.). 그리고 최종호, 1999, 「박물관 전문직 양성과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고문화』 51, 157~168 참조.

19) 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 이외에 이인범, 1999, 「미술관전문직의 역할과 직업윤리」『미술관학강좌』 1999,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147~158, 참조.

따라서 학예연구원은 대학에서 정규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수준과 박물관에 대한 이론과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전문적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집자료의 기초조사부터 정리 및 전시자료의 조사연구와 전시기획의 담당은 물론 관리운영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sup>20)</sup>

그러나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은 대학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임시직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학은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는 물론 대학, 대학원 그리고 사회교육원과 사이버대학 심지어는 노인대학까지 운영하면서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학예연구원은 학문적 연구는 물론 교육 및 행정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비록 대학박물관의 연구인력이 체계적인 양성이나 정착된 제도 속에서 훈련된 전문인력이 아니라거나 학술능력과 연구의 전문화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학예연구원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규정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sup>21)</sup>

이에 대학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수없이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연구 전임교수제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의 주요 구성원인 관장과 학예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인력의 업무분장과 역할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전임교수제의 도입은 고사하고 학예연구원에 대한 처우 역시 대학행정의 제도적 공백과 답습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은 학예연구원이 교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임시 중간기착지로 인식되어왔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됨으로서 대학박물관의 전문적 활성화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다.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이 대학에서 연구와 전시를 통한 교육기능과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예연구원이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절대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행정적인 신분의 구속은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박물관은 일반박물관보다 학술적인 연구와 지식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하는 선도적인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구전임교수제의 확립은 대학박물관의 전문적 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를 해결

20) 이난영, 1999, 「앞 글」(주8) 17~19의 'curator의 전문화' 참조

21) 정정원, 1999, 「앞글」(주8) '대학박물관의 특징' 과 '대학박물관의 활동방향' (141~146)참조.

하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의 하나로 연구, 교육, 전시, 조사, 유물관리, 행정협력 등에 걸쳐 학예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 전임교수제 실시와 함께 적절한 업무분장과 엄정한 역할평가를 확립시켜야 한다.

앞으로 대학박물관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해줌으로서 문화적 전승과 지식을 재창출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 교육적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며 대학 내의 유관학과와의 학술적 연계강화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중개시스템의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정규교육 이외에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교육과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급변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학박물관의 기능속에서 학예연구원에 대한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역할평가가 이루어질 때 학예연구원의 역할과 기능도 명백해 질 수 있고 의욕적인 자기개발과 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족하지만 작은 시도의 하나로 학예연구원에 대한 업무분장과 전문직 역할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앞으로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대학박물관 뿐 아니라 일반박물관에서도 업무분장과 역할의 평가에 대한 방안이 확립되었으면 한다.<sup>22)</sup>

22) 본 글을 작성하는데 장명수(국민대), 나선화(이화여대), 우종윤(충북대), 성태규(영남대), 조현복(동의대) 등 학예연구원의 많은 조언과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 업무분장 및 역할 평가방안

구분	부 문		내 용	비율	기 타
연구	저서	단독, 공동		A B C	#논설-연구동향, 회고와 전망, 연구기행(5천자 이상) #논평-서평, 수필 신문, 잡지 (2천자 이내)
	역서	단독, 공동			
	논문	단독, 공동			
	자료연구	자료해석, 분석			
	논설				
	논평				
교육	강의	대학원			#강의-대학, 대학원의 정규교과 학점은행제의 사회교육원 강의(팀티칭: 최소 30% 이상 담당) #강연-1시간 이상, #강좌-무학점제도 #정보화-실습 기자재 확보율
		대학 정규강의			
		대학 연계강의			
		학점제			
		사회교육			
	강연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좌	정기			
		부정기			
운영회수					
정보화	정보화 강의				
실습	실습병행 강의				
자문					
전시	기획	기획안			#기획안-A4 10페이지 이상 #도록-A4 30페이지 이상 (2천자 이상의 해설첨부) #팸플렛, 카탈로그, 리플렛 (1천자 이내의 개요첨부) #운영회수 및 참여율 #독창성, 연속성
		연출안			
	출판	도록			
		팸플렛			
		원고작성			
	전시	기획전시			
		상설전시			
		운영 회수			
		자원봉사, 인턴			
	개관	정기			
		부정기			
		운영회수			
		자원봉사, 인턴			
	프로그램	기획			
		운영회수			
자문	기획				
	운영				
	홍보				

구분	부 문		내 용	비율	기 타
조 사	발굴	참여직책		A B C	#정부기관, 법인급, 문화예술단체 용역 #학교 및 사업체의 용역 #자체 경비 #회비
		연구기여도			
	지표조사	참여직책			
		연구활용도			
	답사	학술조사			
		문화답사			
	수집	기획안			
		연구활용도			
수집수량					
보고서	원고작성				
	사진, 도판				
용역연구	용역액				
유물 관리	정리	분류, 작성			
	환경관리	수장고 관리			
		진열실 관리			
		입출입 관리			
		점검 빈도			
	전산화	유물자료			
		사진자료			
		도서자료			
		전산화 작성비율			
	보존처리	정기소독			
보존처리					
보호관리대책					
행정 협력	자기개발	연수			
		출장			
	행사회이	개최			
		참가			
	협력사업	대외교류			
		학술교류			
		유물대여			
	수상표창	단체			
		기관			
	업무실적	개선, 처리			
		홍보전단			
		홈페이지			
		문화상품개발			
기념품점 운영					

구분	부 문		내 용	비율	기 타
행정 협력	직무능력	전문지식			
		창의성			
		직무태도			
		이용도 통계조사			
	회원제 운영				
자격증					
기타	자료확인	기록점검			
		환경설정점검			
	자료제공	연구자, 전공자			
		출판, 언론계			
		일반인			
	자문	유적, 유물			
		교육프로그램			
		전시기획			
		박물관 설립			
		감정			
	지역사회	시설이용, 제공			
		협력사업			
		성과 공헌도			

# Professional Function of A Curator for Improving University Museum

-Establishing Professional Faculty Researchers-

Oh, Il-Whan

A university museum is the institute, which plays a role as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al function. It had been tried to do best to keep encouraging its function in difficult period when its basic law was disappeared since it has founded in 1955.

A university museum, which was boomed in digging and developing academic study, affected our culture development. Moreover, it plays the best role as educational institute because it gives us much information about database of research and educational environment. However, the change of education pushes a university museum into new paradigm recently. Namely, there is lack of space for display, manpower, and fund even though it tries to find new professional researcher now. So all elements above make special researchers be difficult to work in their field.

In general, the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curator at least needs experience of background as researcher, professor, and scientific engineer. Especially, a curator is a basic part of three elements, which others are database and facility, of museum. To be a curator needs to have regular educational background, do training, and know about law of ICOM. Moreover, it needs qualification as curator to be able to teach students and as a director to collect researches about excavation and operate a museum.

First of all, a university museum needs to set up the identity of curators and find the right way to distribute a specific job task for them. Curators in Museum University should develop their special experience, and then the experience, at which curators have ever worked, can be made as a product and be remodeled for establishing knowledge system.

However, there is no evaluation data about a job task of between a chief director and curator in university museum. Particularly, it hasn't been still succeeded in a system of professional research faculty to improve their position. Therefore, the university museum has been known for a just tool to be a professor, and its the most obstacles to encourage educational system in university museum.

A curator in university museum should define as professionalism, which he or she works research, education, and gallery. Now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knowledge management. So, curators try to keep their copyrights and set up new value of university museum.